

광주교도소, 생명나눔 '헌혈 이어가기' 진행



광주교도소(소장 김도형)는 지난 11일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 이번 헌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의 협조를 통해 광주교도소 정문 앞 헌혈 차량에서 많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이 중에는 '헌혈 100회'를 앞두고 있는

직원이 있어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됐다. 직원들은 "자그마한 도움으로 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정말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을 통하여 이웃을 돕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KT·행안부,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육



KT(대표이사 김영섭)와 행정안전부는 12일 광주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조기 확산을 위해 호남지역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호남권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지니버스' 도로명주소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취지 및 교육

현장 활용 방안 등이 소개됐다. 한편 '지니버스'는 가상 세계에 나만의 공간을 꾸미고 생성형 AI로 아바타 메시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KT의 AI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KT와 행안부는 콘텐츠를 추가해 초등학교 생활을 위한 디지털교과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올 바이 마이셀프' 에릭 카먼 별세



팝송 '올 바이 마이셀프'(All by Myself)로 유명한 미국 가수 에릭 카먼이 세상을 떠났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년 74세.

카먼의 부인 에이미 카먼은 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남편이 주말 사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NYT는 록 가수 카먼이 1970년대 파워 팝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밴드 '라스프베리스'(Raspberries)를 이끌었고 솔로 가수로도 성공했다고 전했다.

클리블랜드에서 결성된 라스프베리스는 1972년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고 올 더 웨이'(Go All The Way), 두 번째 앨범 '프레쉬'(Fresh)로 큰 사랑을 받았다.

카먼이 1975년 발표한 첫 솔로 앨범에 수록된 '올 바이 마이셀프'는 미국 빌보드 핫100에서 2위까지 오르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다. 카먼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의 선율을 따서 만든 이 노래는 셀린 디옹 등 여러 가수에 의해 다시 불렸다. 또 같은 앨범의 '네버 고너 폴인 러브 어게인'(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은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3악장에서 주제를 따온 곡으로 빌보드 핫100 11위까지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여성가족재단, 조선대와 지역발전 선도 협약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김경례)과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12일 조선대 본관에서 '지역발전 선도를 위한 혁신·공유·상생'이라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광주지역 발전에 대한 협업체계 발굴 및 대학 내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해 진행됐다. '광주 성평등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연구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확산한다를 취지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공기관-대학 간 협업과제 발굴 및 지원', '광주여성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협업', '산학연관 지역 맞춤형 교육 및 연구 협력 활성화' 등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례서 다회용기 사용 독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제)은 최근 구례 산수유 꽃 축제(9일-17일) 현장을 방문해 축제장 음식점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고 친환경 홍보 부스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 환경청은 산수유 꽃축제 현장에서 다양한 친환경 체험을 할 수 있는 홍보 부스 '환경아 놀자 체험 한마당'을 운영중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연제 청장은 "전 세계의 문제로 떠오른 기후위기의 시대에 환경에 대한 관심은 꼭 필요하다"며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친환경 축제 만들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

대한노인회에 지원금 전달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유성)는 지난 11일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연합회장 정영수)에 빈곤조손가정 지원금 610만 원을 전달했다.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 제공)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0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뽀 좋아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5 숨터 스페셜(재) 10 사사기획 창(재)	0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15 푸르기 식사교실(재) 45 주니토니 이야기	00 에니갤러리 30 안녕 자두야 45 헬로키티 X
12	00 KBS 뉴스 12	15 더 시즌즈 -이효리의 레드카펫(재)	00 12 MBC 뉴스 25 대학체전:소년선수촌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휴먼다큐 마담 이쁜 우리맘
1	00 KBS네트워크특선 지명수배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00 뉴스브리핑
3	10 어린이동물티비(재) 40 팔도밥상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5 코드네임(재) 30 TV 유치원(재)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스튜디오 K 스페셜 30 영상앨범 선(재)	55 5 MBC 뉴스	00 시장의 품격 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연설 <국민의힘>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00 신비아파트 고스트블 제로 30 꿀잼 영화가 좋다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8000회 특집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특별기획 4부작 7년 전쟁과 전라도사람들(재)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월드 24 55 살림하는 남자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원더풀 월드(재)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15 스모킹 건	20 대학체전:소년선수촌 스페셜 30 라디오스타	40 브로 앤 마블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5 아이 러브 스포츠 40 고려 거러 전쟁(재)		50 보물지도(재)
12	00 KBS 중계식 <부천필하모닉 정기연주회>	40 KBS 재난방송센터(재)	1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30 숲이 그린 집(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만국경문록(재)	19:20 고향민국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귀하신 몸(재)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17:30 하프와 친구들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치수천(治水天下) 물의 길, 중국 -하늘이 내린 땅 부처지국(天府之國)>
07:45 꼬마버스 타요	15:15 강신주의 장차 수업	21:35 한국기행
08:00 당동당 유치원	15:55 블록스	<바다야 고미워 3부 부부의 전복>
08:20 웃기는 처음 영어	16:10 당동당 유치원(재)	21:55 왔다 내 손수
08:50 뽕뽕뽕 부부만	16:30 페퍼 피그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05 골짜기 처음 수학	16:40 마사와 곰	23:35 톰
09:20 인간이 되자!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55 꼬마버스 타요(재)	24:00 EBS 비즈니스 리뷰
10:30 한국기행(재)	17:10 웃기는 처음 영어(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3일(음 2월 4일 丙子) ☎ 010-9790-8237

<p>36년생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을 세심히 살펴보자. 48년생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갈수록 근육 스러워질 수도 있다. 60년생 때를 놓치기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72년생 성과를 확실한대로 당장 실행해둔다. 84년생 거슬러더라도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다. 96년생 보완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8, 80</p>	<p>42년생 사소한 원인으로 경시하지 말고 예의 주시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54년생 어둠이 사라지면서 희망찬 미래가 밝아 온다. 66년생 느낌으로만 판단하여 건넌것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78년생 다수인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90년생 전혀 예기치 않은 만남이 있을 수다. 02년생 지금의 판도가 무방해했다. 행운의 숫자 : 21, 70</p>
<p>37년생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니라. 49년생 상당한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할 것이다. 61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번수를 안고 있다. 73년생 확실히 변화시켜야만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85년생 자기와의 약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97년생에 상했던 바와 정반대로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0, 73</p>	<p>43년생 현황을 유지하기 위한 복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55년생 표면적인 현상으로부터 판단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번고를 날 것이다. 67년생 주도면밀한 인식이 명쾌한 판단으로 이끌 것이다. 79년생 무리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91년생 대책 마련을 위해 부심해라. 03년생 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71</p>
<p>38년생 참으로 어려울 때 유연히 협조자가 나타나서 물꼬를 트는 형상이다. 50년생 정곡을 찢어서 본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겉돌면서 헛고생만 할 뿐이다. 62년생 미진한 점을 분명히 하고 진용을 정비할 때다. 74년생 상대의 뜻을 받아 줄이 결과적으로 나올 것이다. 86년생 대의를 도모하라. 98년생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1, 85</p>	<p>44년생 중저대한 일에 직면하게 되리라. 56년생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칼질로라도 작용할 것이 뻔하다. 68년생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80년생 직접 나서지 않고 측면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것도 괜찮다. 92년생 태평스런 행해가 될 것이다. 04년생 무리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16, 56</p>
<p>39년생 마지막 난관일수도 있으니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겠다. 51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이익이니 모든 미련을 버려라. 63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응하는 것이 낫다. 75년생 이치에 어긋남이 없어야 오래 갈 것이다. 87년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간발의 차이로 행운을 잡게 된다. 99년생 순조로움을 더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61</p>	<p>45년생 실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57년생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형세는 마찬가지이다. 69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맹해볼 필요가 있다. 81년생 번거롭고 해서 피하기만 한다면 해결될 수 없느니라. 93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시 방심한다면 그 순간에 놓칠 수도 있다. 05년생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 00, 54</p>
<p>40년생 실효적인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때가 있다. 52년생 유명무실한 것에는 미련을 둘 만한 명분이 서지 않는다. 64년생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거든 가부잔반의 입장을 분명히 해둬야만할 것이다. 76년생 궁극적인 목표점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88년생 심겁게 끝낼 수다. 00년생 지체 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13, 95</p>	<p>46년생 문제점은 해소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58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70년생 꾸준해야 실효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82년생 기존의 정황보다 훨씬 나은 쪽으로 변경되는 판국이다. 94년생 무의식적인 실수가 판국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06년생 마음뿐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5, 75</p>
<p>41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함이 유리하다. 53년생 잔술밭에서 바늘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65년생 주관에 기초한 추측은 오류를 낳는 법이다. 77년생 회근이 될 수 있으니 신속한 단속이 절실하다. 89년생 설득력 있는 실행이 뒤따라 줘야 한다. 01년생 말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직접 보면서 행해야 할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14, 72</p>	<p>35년생 인식을 달리한다면 일취월장한다. 47년생 기본 방향에 대한 감각을 잃지 말아야겠다. 59년생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는 이가 있겠다. 71년생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보이다. 83년생 만전을 기해야만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95년생 참신한 변화를 모색해보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42, 92</p>